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7>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 구연(具緣)

경계가 고요하면 마음도 공적

지관수행을 쉽게 하려면 번잡한 세속 멀리 떠나야

第三得閑居靜處 閒者 不作衆事 名之爲閒 無憒요 故 名之爲靜 有三處可修禪定

이상으로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추는 가운데 의복과 음식에 대한 문제는 이미 끝났으므로 이제는 고요히 안주하는 처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고요히 안주하는 처소는 물가나 숲 아래 또는 산 바위나 석굴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홀로 공부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계가 고요하면 마음도 쉽게 공적해지기 때문이다. 한가하다 하는 것은 청정함을 말하는데 이는 세간의 일체 유위법과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시끄러움이 없다 하는 것은 일체 번뇌를 멀리 떠남을 말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좌선을 닦는 것을 고요하고 안정된 처소라고 말한다.

이 문제도 요약하면 세 종류의 처소에서 선정을 닦을 수 있다.

一者深山絶人之處

마음이 한결같아서 혼란하지 않는 상태를 선정이라고 한다. 가령 몸이 심산유곡에 앉아있다 해도 마음이 원숭이나 말처럼 날뛴다면 세속과 다를 바가 없다.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공적하고 한가한 처소를 찾는 이유는 처음 발심한 사람은 시끄러운 환경을 떠나야 만이 이익을 쉽게 얻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깊은 숲, 높은 산중에 멀리 떨어져 거처하면서 의복과 음식을 사람들에게서 직접 구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시끄러움도 없어야 한다.

이는 인간세상과 단절해야만 육근이 육진과 마주했을 때 집착심을 일으키지 않고 도와 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존께서 설산에서 고행했던 것도 바로 인간세상과 단절한 경우였는데, 이것을 최상근인이 고요한 처소에 한가롭게 거처하는 것이라고 한다.

二者 頭陀蘭若之處 離於聚落極近三四里 此則 放牧聲絶 無諸憒요

두 번째는 두타행을 수행하는 고요한 처소인데, 두타행에는 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던 바와 같다.

청정하고 한가한 처소는 촌락마을과 떨어져 있는 곳이며, 마을과 가장 가깝다 해도 삼리 사리 혹은 십리 이 십리 간격으로 떨어져야만 한다. 이런 곳이어야만 짐승을 방목하는 소리가 단절되고 방목하는 사람까지도 찾아오기가 힘들다. 목동이나 땔나무꾼이 찾아오지 않고 닭 우는 소리, 개짖는 소리까지도 멀리 단절해야만 한다. 그 때문에 "모든 심란하고 시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중근인이 한가롭게 거처하는 고요한 처소라고 말한다.

그 옛날 부처님이 세간에 계실 때 다섯 비구가 산에서 수행하면서 공양할 때가 되면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하고 교화를 하였는데, 마을까지 오고가는 거리가 무려 백리나 되었기 때문에 수행을 못한 채 하루종일 길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와 같이 십 여년 수행을 했는데도 공부에 털 끌만큼도 진보가 없자 다섯 비구는 크게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세존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수도인을 교화해서 그들에게 공양을 공급하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심히 행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을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은 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야 어느 세월에 공부를 성취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마을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처소를 선택해서 머물러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익이 없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三者 遠白衣住處 淸淨伽藍中 皆名閒居靜處

세 번째로는 총림사원 가운데 안주하면서 종일토록 대중과 함께 생활한다면 도를 얻기가 매우 쉽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일반 신도를 멀리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스님 대중이 입는 옷은 먹물 옷이므로 세속인의 의복과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정한 가람은 대중이 화합하여 모여 사는 곳이다. 그 때문에 청정한 가람을 모두 한가하고 고요한 처소라고 한다.

여의주를 찾으려면 파랑이 고요해야만 하고 물이 맑아야만 나타난다는 것이 일정한 이치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종일 번뇌 경계의 바람에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내 자성 청정한 실상 보배 여의주를 구하려 한다면 여의주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第四息諸緣務有四意

다섯 인연 가운데 세 가지 인연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고 나면 네 번째로 세속 일을 반드시 물리쳐야만 도업으로 진수할 수 있다. 가령 몸은 띠집 암자에 머문다 해도 집안일을 하고 있다면 고요한 처소가 분주하고 바쁘기만 하기 때문에 비록 처소는 고요하다 할지라도 고요한 실제내용이 없으므로 역시 도에 이익이 없다.

세속적인 생활에 핍박받거나 또는 세간 사무에 얽매인다면 산속의 고요한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세상과 다를 바 없지만 모든 잡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시끄러운 세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요한 산속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을 쉬는 데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

一息治生緣務 不作有爲事業

세간에서는 사농공상 등을 모두 살아가기 위한 생업이라고 하는데, 그 모두는 유위사업에 소속된다. 지관을 수행하는 자라면 유위사업을 멀리 여의고 아울러 세간적인 생산업도 쉬어야만 한다.

二息人間緣務 不追尋俗人朋友親戚知識 斷絶人事往還

앞에 했던 말은 자신을 상대해서 한 말이고 여기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논하는 말이다.

"추구하지 않는다 함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친구들과 교제하고 친척과 왕래하는 것은 본래 세간법이다.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행해야만 한다. 인간의 이익이란 본래 공하고 생사의 일이 크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하여 서로 교제를 맺고 왕래를 한다는 것은 그 모두가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라는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때문에 반드시 세속과의 교제를 단절해야만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악견(惡見)①

"악견(惡見)은 모든 진리에 대해서 전도된 견해로 잘못 추리하고 헤아리는 교활한 지혜를 말한다. 때문에 선한 견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하므로 이로 인해 고통의 과보를 부르는 모습이 그 현실작용의 특징이다."

유식삼십론(唯識三十論)에서는 악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이 악견은 활동하는 모습에 따라 살가야견, 변집견(邊執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 계금취견(戒禁取見)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살가야견

'살가야'라는 것은 거짓된, 즉 실재하지 않는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유정들은 이처럼 거짓된 허깨비 아집의 견해를 일으키므로 이것을 '살가야견'이라고 하며, 유신견(有身見) 또는 위신견(僞身見)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등이 모여 임시로 구성된 것인데, 유정들은 이 오온(五蘊)을 실재하는 '아(我)'와 '아소유(我所有)'라고 굳게 집착합니다. 따라서 일체의 잘못된 견해가 이를 근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진리를 망각 전도된 견해로 착각
선견 못 일어나게 방해 고과불러

아소는 아소유라고 하는데, 가령 무상한 오온을 실재하는 '나'라고 헤아리고 그것을 이미 굳게 집착하고 나면 다시 그 오온을 진실한 주재자로서의 나의 소유물이라고 집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소의 집착은 재물 · 명예 · 권세 ·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세계국토 내지는 우리가 평소 옳다 여기고 잘못 집착하고 지닌 편협한 견해까지도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을 다 아소유라고 합니다. 아소는 오온에 대한 아집이 있기 때문에 아소유집이 동시적으로 일어나 그 집착하는 모습이 매우 은미하여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잘 관찰해야만 이러한 잘못된 집착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살가야견은 아집견(我執見)으로 요약이 됩니다. 아집견은 본래 무아이고 따라서 무상한 오취온에서 그것을 실아실법(實我實法)으로 잘못 분별하고 집착하는 데서 일으키는 전도된 착각의 견해입니다.

이 아집견을 다시 법아견(法我見)과 인아견(人我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아견에 집착한 다음에 인아견에 집착하게 됩니다.

■정리=張如舟

쌍 화 차

피로회복 감기예방에 좋은 쌍화차를 엄선된 약초로 정성들여 끓여 여러 불자님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일물산에서는 일산 수연제, 인사동 모란, 여의나루 하나찻집 등 전통찻집과 각지에 계신 일반 고객들께도 좋은 반응을 얻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저 알리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팩 ➡ 35,000원 60팩 ➡ 60,000원 [배송료 포함]

❖ 氣를 바로 알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전 부터 인체 · 나무 · 동물에 어떤 에너지를 접촉했을때 그 변화하는 기운을 시각 촉각 등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되는 능력을 얻어 그동안 저에게 인연이 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지면을 통해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건강에 도움이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질개선이 아닌 현재 상태의 기운을 통해 어떤 에너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 내므로 즉시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내 몸에는 어떤 식품이 맞을까?

내가 먹고 싶은 식품(곡식, 야채, 과일, 고기류, 생선류, 약, 약초, 건강식품)이 내몸에 맞는지 즉석에서 판별해 드립니다. O-Ring테스트나 L로드, 팬드릭 같은 인위적인 매개체 없이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즉시 읽어내므로 틀림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통증과 피로감 불편함에서 벗어날까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내어 거기에 맞는 식품, 약초, 건강식품 등을 맞춰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몸에 맞는 기능성 맞춤 한방차를 이용하시면 탁월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 예

- 어린이 : 분유, 이유식 제품선택
- 아토피 허약체질 : 기피음식 분류
- 청소년 :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 분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한방차 선별
- 직장인 : 스트레스,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필요한 식품 한방차 선택
-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 : 어느 경락의 부조화인지 상담

건강식품, 약초 약재, 신약등을 연구하시는 분께는 인체 적용 반응을 이용하시면 높은 효능과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공동연구도 가능합니다.

세일물산 02)965-4413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